

오노야스마로(太安萬侶) 묘 [나라시 고노세초(此瀬町)]

오노야스마로는 와도(和銅) 5년(712)에 완성한 일본 최고의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의 편찬자로서 유명하다. 『속일본기(續日本紀)』에는 오노야스마로의 위계에 관한 내용이나 요로(養老) 7년(723) 7월에 민부요(民部卿; 민부성(民部省)의 장관)라는 역직을 할 때 사망했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오노야스마로의 무덤은 나라현청에서 직선거리로 남동쪽 약 7km 떨어진 나라시 고노세초(此瀬町)에 있고 소화54년(1979) 1월에 구릉의 남쪽 사면에 있는 차 밭에서 개식(改植)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발견자의 적절한 통보와 신속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나라시대의 분묘로는 아주 드물게 무덤의 구조나 묘지의 출토상황이 명확해진 귀중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당시에 봉토는 이미 삭평돼 있었고 한 변이 180cm정도인 방형 묘광에는 목탄에 덮힌 목곽(木櫃)이 매납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화장된 뼈와 진주 4알이 매납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곽의 수종은 금송이고 크기는 길이 약65cm, 폭 약38cm, 높이 약38cm이다. 목곽 밑에는 41자의 문자가 새겨진 묘지(墓誌)가 아래를 향한 채 납치(納置)되어 있었다. 묘지는 순동(純銅)에 가까운 동판으로 길이 29.1cm, 폭 6.1cm이다.

두께는 평균 0.5mm밖에 되지 않는데 명문을 두드려 새겼기 때문에 뒷쪽으로 명문이 옹기돼 있다. 동시대의 인물이고 위계도 종사위하(從四位下)로 같았던 오하리다야스마로(小治田安萬侶)의 묘지의 경우, 크기는 같지만 두께가 4mm나 된다. 그 밖에 아스카·나라시대의 묘지도 3~5mm의 두께가 있어서 오노야스마로 묘지는 눈에 띄게 얇은 것이 특징이다. 명문은 다음과 같이 2행에 걸쳐 기술되고 있다.

左京四條四坊從四位下勳五等太朝臣安萬侶以癸亥  
年七月六日卒之 養老七年十二月十五日乙巳

여기에는 생전의 주소, 위계나 훈위, 오노야스마로의 이름, 사망한 날짜 등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분묘의 매장자가 오노야스마로이고 오노야스마로가 헤이조쿄(平城京) 좌경 4조 4방(左京四條四坊)에 살았던 것이 처음 밝혀졌다.

2012년에 실시했던 묘지의 3차원 계측과 육안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명문의 행간에 농자(籠字)모양의 문자 흔적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자 흔적은 명문과 같은 내용으로 1행째의 「안(安)」 「만(萬)」 「려(侶)」 「이(以)」 「계(癸)」, 2행째의 「십(十)」 「이(二)」 「월(月)」 「십(十)」 「오(五)」 「일(日)」 「을(乙)」이 각각 명문의 왼쪽 밑에서 확인되었다. 문자 흔적은 명문의 글자 모양이나 문자 간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명문의 초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오노야스마로 묘지는 진주 4알과 함께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나라현립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를 하고 있다. 조사 당시에 떼어낸 묘광 안의 목탄과 토층은 무덤 모형에 이용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상설 전시되고 있다.